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시작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지난 2월부터 채취가 본격 시작됐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는 우수(雨水)를 전후해 해발 600m 이상인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나무 9만여 그루에서 채취한다. 특히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는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과 고지대에서 채취해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높아 전국 최고 품질로 각광받고 있다.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일 때 채취량이 절정을 이룬다. 한편, 오는 3월 14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는 '제38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3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장비·안전관리·소방시설 등 6개 분야 문제은행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기 평가는 실제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핵심 종목들로 구성해 대원들의 업무 숙달도를 면밀히 점검한다. 분야별 주요 실무 항목으로는 △화재진압 4인조법 △교통사고 인명구조 및 차량 문 개방 △응급처치 술기 및 산소투여 등이 포함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소방서, 2026년 상반기 직장훈련 실시

정읍소방서는 지난 26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내근 및 교대 근무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직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소방차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안전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의 특성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 시 대처 요령 등을 진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해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신입 소방공무원들의 조직 이해도 향상에도 힘썼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신협·전북현대, 3년 연속 공동홍보 협약 체결

2026시즌 K리그1 정규리그 홈경기서... LED 광고판에 각 조합 홍보 문구·영상 송출 등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모터스 FC가 '2026 공동홍보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양춘제 전북지역협의회장(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과 강연수 본부장, 이석만 전북신협 실무책임자협의회장, 이도현 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북신협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의 공동홍보 협약은 2024년부터 이어졌다. 전북신협은 오는 3월 1일 열리는 전북현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시즌 K리그1 정규리그 홈경기 19경기에서 LED 광고판을 통해 각 조합 홍보 문구와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광고는 전반전 7회, 후반전 7회 등 경기당 총 14회 노출되며, 경기장 관중은 물론 TV 중계를 통해 전국 K리그 팬들에게 전달된다. 이와 함께 전북신협 Family-Day와 '평생어부바 사랑의골' 협약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과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 70개 신협은 2024년 제1회 공동홍보 스폰서십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현대를 공동 후원해왔다. 전북현대에는 홈경기장 LED보드와 전광판 등을 통해 전북신협과 '신협ON뱅크' 홍보 문구를 노출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70개 개별 조합명을 전국에 송출하고 있다. 양춘제 전북지역협의회장은 "전북도민의 자부심이 자 K리그 대표 명문구단인 전북현대와 올해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신협은 공동홍보 파트너이자 사회공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시즌에도 전북현대와 열린 번째 우승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남원의료원,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의료·복지 연계 강화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27일,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과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의료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진료한다. 주요 진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뇌졸중 후유증, △퇴행성 관절질환 등 노년기에 빈번하게 발



생하는 질환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진규 원장은 "남원의료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구시포해수욕장 휴양시설 안전 체험부스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캠핑장·야영장 등 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구시포해수욕장에서 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부스에서는 △캠핑장 화재예방 수칙 안내 △119 신고 방법 교육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응급처치 교육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체험을 함께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가슴압박 위치와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응급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배웠다. 또한 캠핑 시 텐트 내부 화기 사용 금지, 숯불 완전 소화, 가스버너 사용 후 밸브 확인 등 야외활동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덕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자치 프로그램 논의

임실군 덕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6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2026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색소폰, 게이트볼, 고고장구, 압화로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성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에도 덕치면 주민 모두가 여가생활을 의미있게 보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용지면 지사협, 초·중입학생 도서문화상품권 지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병삼)가 지난 27일, 관내 초등학교(용지초) 및 중학교(용지중)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출발을 응원하는 문화상품권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내 초·중학교 입학생 총 12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에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3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etc.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112' (Good Reporting 112). Includes a photo of a distressed girl, the slogan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and a list of services provided by the 112 hotline.